

# ‘변화의 시대’...치열한 작가정신으로 예술, 본질을 보다

‘무등현대 아트벨리 프로젝트 I’...내달 2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이승택·김재관·한만영 등 8명 참여...다양한 장르 11점 선배 ‘작가다움, 예술다움, 작품다움’ 조망, 한국 현대미술 위상 제고

한국 현대미술에서 오랜 시간 작가정신을 지키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완성시킨 ‘예술가다운’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등현대미술관은 다음달 20일까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아 ‘무등현대 아트벨리 프로젝트’ 1부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 기획은 이명환 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위원이 맡았다. 로컬이 중심이 돼 범국가, 법체계적으로 현대 한국미술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독창적인 시각예술가를 초대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각예술가 8명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거나 이를 향해 가는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평면·입체·설치·미디어장르 총 11점 작품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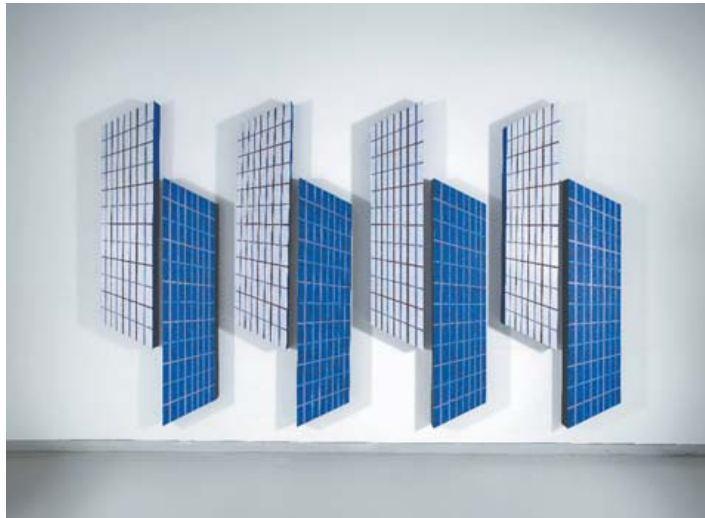
이승택은 한국 현대미술 전위예술의 아버지라 칭송되는 작가다. 한국 현대미술의 과도기에서 서양화사조의 유입과 답습을 선택하지 않고 외길 한평생 세상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아온 예술철



이승택작 '무제'

학이 세상에 유일한 작품다움을 탄생시켰다.

김재관은 한국 로컬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주목받는 이다. 기하학적 추상 작가로 그리드(Grid), 지오-옵티컬(Geo-Optical) 개념의 작품에 생명력을 불



김재관작 'Relationship-Fiction'

어넣는 철학적 작품을 소개한다.

한만영은 개념미술의 파라다이스를 일컫는다. 작가가 구현하는 새도 드로잉(shadow drawing)은 과거·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뒤섞는 작업으로 실상과 허상, 구상과 추상,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작가다움을 보여준다.

정승규는 현미경 시각의 미학적 확산을 통해 픽셀화한 랜드스코프 세계를 창작정신의 대상으로 삼는다. 축소된 우주공간 격인 캔버스 위에 고무 스탬프의 하모니적 향연을 전개함으로써 작가다움을 가득 채운다.

권현은 인류의 인문학적 가치의 작품이



차기울작 '순환의 여행-방주와 강목사이'

라 할 수 있는 신화·역사·철학·종교 등을 모티브로 삼는다. 사회에 밀착된 일상 속 스토리를 작가의 성찰을 거쳐 재구성하며, 신비주의적 시각을 배려해 아늑하고 생경한 현실을 펼쳐낸다.

차기울 작가는 형이상학적 물성을 갖는 표상의 설치작업을 한다. 그의 '순환의 여행' 프로젝트는 인간 본성의 문체와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보여지는 인류의 문체를 되짚어 보는 예술과 인문학의 탐구다.

이명환의 작품은 현미경적 생태환경에서부터 최첨단 공상과학소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착상을 통해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전시작 '시각적 신화'는 우리

신화를 모티브로 생소한 조형성을 구현한 개념작품이다.

김용식은 우주론적인 시야를 통해 무한한 공간에서 유한한 생명체의 초월적인 발상의 모티브를 드러내고 있다. 때론 축축한 양수의 공간의 은유적 접근을 보여주며 모든 잉태하는 생명체의 존귀함을 주제로 삼아 구상적 기호화로 발현한다.

이명환 전시 감독은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지남의 시간의 인내와 탐색, 도전이 만들어낸 예술가의 본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작가다움, 예술다움, 작품다움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구성연 작가

박진주 작가 '신진작가상'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구성연(사진) 작가, 신진작가상에 박진주 작가가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광주·전남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90명이 응모한 결과, 1차 선정작가 8명이 선발됐다. 현재 갤러리에서는 감민경·구성연·김진남·박진주·송석우·유수연·유지원·정덕용 작가 대표 작품과 포트폴리오가 전시 중이다. 전시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에 선정된 구성연 작가는 동국대 인도철



구성연작 'sugar\_12'

학과와 서울예대 사진과를 졸업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 영동한 사물을 배치하거나 형태적 유사성을 지닌 사물을 통해 속성을 재해석한다.

대표작 'sugar'는 설탕을 녹여 만든 사물들이 겹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명

에도 녹아내리는 존재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사물을 바라보는 뛰어난 관찰력과 색다른 관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진주 작가는 고려대 디자인조형학과와 이화여대 동양화 전공 석사를 졸업했다. 작가는 자신의 신체를 화폭에 담아 자존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스스로를 숨기고자 하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이중적인 욕망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대표작 '뒤틀난', 'Finger Skin'은 빛을 투과하는 비단을 활용해 피부의 질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세밀한 디테일을 강조하는 표현력이 돋보였다. /최명진기자

## ‘자유로운 대화’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 내달 13일까지 남포미술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중견·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다음달 13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열리는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 '자유로운 대화'다.

전남도도와 전남문화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일 현대미술의 흐름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박영대, 윤길영 등 ICA 국제현대미술협회 작가 27명과 스즈키 야스오, 아키야마 토시오 등 일본



스즈키 야스오작 'Broadway'

살롱블랑 미술협회 작가 14명이 참여해 회화·사진·판화 등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곽형수 남포미술관장은 "교류전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술인들이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창조적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쳐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장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구례

문의 : 062)650-2099